

## 15 인쇄업 소부실 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성별	남성	나이	52세	직종	인쇄업 소부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 요

근로자 ○○○는 1983년부터 인쇄소 소부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유사업종에서 영업직, 생산직을 하다가 2009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부실 근무를 하였다. 2012년 8월 간헐적인 복통이 있어 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대장내시경 하 조직검사결과 악성 림프종 소견으로 혈액내과로 전과되어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치료중이다.

### 2 작업환경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생활용품 및 화장품 케이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소부 공정에서의 작업내용은 필름의 핀트와 문안 검사, PS판에 촬영, 현상 및 세척, 버닝액 코팅, 열풍 건조, 버닝, 망점 검사, 편칭검사, 옅셋 인쇄 순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작업 시 환기장치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작업공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는 현상액, 하몬드 고무액, 버닝액이 사용되었는데, 하몬드 고무액에서 벤젠이 검출 되었으나 그 농도가 높지 않고, 당시의 작업환경측정자료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여도 벤젠 노출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 4 유해인자

- 화학적요인(유기용제\_벤젠)

## 5 의학적 소견

근로자 ○○○은 2012년 8월에 시작된 간헐적인 복통으로 대학병원 내과에 내원 하였고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였다. 대장내시경 하 조직검사 결과 악성 림프종 소견 보여 혈액내과로 전과 되었으며 2012년 9월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과거력상 고혈압 이외에 특이 과거력은 없었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도 없었다.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기타 질환이나 암에 대한 가족력은 없었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23세인 1983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부실 2년 근무, 영업직으로 17년 8개월 근무, 소부실에서 1년 2개월 근무, 다이어리 생산직으로 3년 1개월 근무하다가 다시 소부실에서 3년 6개월간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52세가 되던 2012년에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상병과 관련한 직업적 유해인자로는 벤젠,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다. 근로자 근무한 작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사용여부, 공간 배치 등을 고려하면 벤젠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되었더라도 그 농도는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근로자의 비호지킨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